

북구, 영구임대 단지에 AI 기반 ‘스마트케어빌리지’ 개소

두암주공 2단지 지하상가, 주민 건강복합공간으로 재탄생
스마트 헬스케어센터·커뮤니티센터·청년 공작소 등 조성

광주시 북구가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거점과 청년 창업 공간인 ‘스마트케어빌리지’ 문을 연다.

북구는 11일 광주시 북구 두암주공 두암주공아파트 2단지에 조성된 ‘스마트케어빌리지’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공간은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았던 영구임대아파트의 지하상가 공간을 탈바꿈해 ‘생성형 AI 활용 영구임대 GPT 스마트케어 단지’로 조성됐다.

‘스마트케어빌리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주민들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되면서 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앞서 북구는 작년 11월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두암 주공 2단지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던 지하상가(연면적 689.66㎡) 공간의 무상 사용을 합의했다.

이후 지난 3월 기반 공사를 시작으로 약 9개월의 공정을 거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커뮤니티센터 ▲청년공작소 등으로 구성된 복합 공간이 완성됐다.

향후에는 스마트케어빌리지에 설치된 건강관리 키오스크와 IOT(사물 인터넷) 건강 데이터 측정기기 등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건강도 살필 수 있게 된다. 50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체 데이터를 측정 및 실증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 건강 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GPT 기반 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고독사 예방서비스도 마련된다. 취약계층 1인 가구 세대에는 활동 감지기를 설치해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이 가는 ‘IOT 돌봄센서’ 서비

스를 마련하고, 입주주민들의 고독사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입주주민들이 심신 안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과 통합돌봄 사업이 연중 제공된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조성됐다.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창업 공간인 청년공작소도 5개소가 마련됐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최종 선발된 헬스케어·정보통신 분야 청년 창업가 5명이 다음 주 중 입주할 계획이다.

한편, 개소식은 문인 북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LH광주전남본부장,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스마트케어빌리지 조성은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던 공간을 돌봄·건강·창업이 어우러지는 주민 공동체 거점으로 재구성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남구, 퇴원환자 의료·돌봄·복지 통합 지원한다 전남대병원·보훈병원 등 12개 의료기관 협약 ‘재가복귀서비스’

광주시 남구가 병원 퇴원 환자의 재입원 및 시설 입소 예방을 위해 지역 12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 재가 복귀 서비스’에 나선다.

남구는 최근 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서 퇴원 환자에 대한 재가 복귀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진>

협약을 맺은 관내 병원은 광주기독병원, 전남대병원, 빛고을 전남대병원, 광주보훈병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광주 365 재활병원, 효인재활요양병원, 효다음 요양병원, 사랑샘 병원, 해피뷰병원, 선선 한방병원, 주월 한방병원이다.

퇴원 환자 재가 복귀 서비스는 12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는 환자에게 의료와 돌봄, 복지를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은 건강 문제와 재활 등 장기간 치료로 복합적인 추가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다.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구청에서 건강 상태와 돌봄·의료·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남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입원 가능성이 가장 높은 퇴원 직후부터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은 방문 간호를 비롯해 10가지 이상 약물 복용 대상자 관리, 물리치료, 맞춤형 운동 지도, 식사 지원, 가정 내 안전바 설치, 방문 목욕 등이다.

소득에 따른 서비스 비용 감면도 이뤄진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해 중위소득 9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90~120% 이하는 본인 몫의 비용의 30%를 부담하며, 중위소득 120~160% 이하는 부담금 60%, 중위소득 160% 이상은 전액을 부담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우리 구의 통합돌봄 체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주민들께서 구청과 지역 의료기관의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회복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통기타로 하나된 아이들...감동무대 펼쳐

동구 ‘1인 1악기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성과 발표회

광주시 동구가 지역 초등학생들이 연주하는 통기타 콘서트를 열었다. <사진>

동구는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조선태 해오름관에서 ‘제4회 통기타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동구가 추진 중인 ‘1인 1악기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의 연발 성과 발표회를 겸해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에는 계림·산수·서석·용산·울곡·지한·학운초등학교 등 7개 초등학교에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 지난 1년 동안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갖고있는 통기타 연주 실력을 무대에서 선보였다.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은 지난 2019년부터 동구가 추진해온 문화예술 교육사업이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5학년에서 5~6학년 전체로 확대했다.

동구 관계자는 “통기타 행복교실은 아이들이 악기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동구만의 대표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금과 지역사회의 관심·협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서 성장과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예술교육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광산구, 혐오·차별 내용 담은 현수막 대응 전담 기구 운영

광주시 광산구가 광주 최초로 혐오·차별 등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

광산구는 지난 8일 ‘광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에 ‘현수막 정비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는 선제적으로 혐오, 차별, 허위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교수와 법률가 등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광산구는 혐오 현수막에 대해 우선 형식적 요건을 따져 정비하고, 형식적 요건이 갖춰진 현수막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의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 지침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와 함께 내용적 요건을 판단하는 ‘이중 정비방’을 구축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본적인 설치 요건과 더불어 현수막 내용까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해 불법 현수막 근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시민이 주인인 광산에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공동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혐오 현수막’의 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동구,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12일까지 총 4232명

광주시 동구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동구는 오는 12일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총 4232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별로 노인 역량 활용 사업과 공동체 사업단, 취업 알선 지원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 공익 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경로당 배식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노(老老) 케어 등 노년 세대의 경험을 살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구시니어클럽,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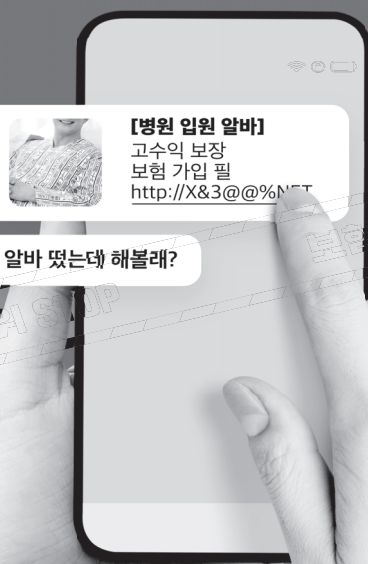
최종 선발은 소득 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달 중순부터 개별 통보된다. 사업은 오는 2026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감 개선과 의료비 절감 등에도 도움을 준다”며 “많은 어르신이 참여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KOREAN FINANCIAL SUPERVISOR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A보험GA협회
IGA Insurance GA Association